

www.ilter.or.kr

# 일터

노동문화예술단

##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 일터소극장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일터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입장권과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일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와 CMS이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 계좌번호 |

농협 905-01-266658 김선관 / 부산은행 020-01-039718-4 김선관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지하 일터소극장  
전화 : 051)635-5370 팩스 : 051)635-9220



#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세상 최고로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을 위한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좌충우돌

일터 제18회 정기공연



2011. 10. 21 (금) ▶ 11. 5 (토)

평일 8시 / 토, 일 5시 (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옆 일터소극장

(문현역 1번출구 / 범일역 2번출구)

연출/작 김기영  
출 연 김선관 조기정 오다운

마음이 심란하거나 계통 없이 복잡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은 시장통에 가서 국수를 먹곤 하던 때가 있었다.

제 마음 하나 뜻대로 못해서 먹는 것에 기대 보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복잡한 심사에 단순한 그 음식이 마음에 끌려서이리라.

씹을 것도 없이 잘 넘어가고 지나친 포만감으로 불편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의 존재감으로 국수는 곁에 있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작은 박스 기사에 눈길이 머물렀다.

노숙자들이 모여서 동네에 작은 국수집을 차렸다는 내용이였다.

그 국수집의 이력이 특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수 맛이 궁금하여 한 번 가보고 싶었으나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은 가보질 못했다.

그러다가 그 소박한 음식의 역사가 놀랄 만큼 장구하며 종류 또한 다양하고 화려함도 알게 되었다.

후루룩 한 입에 넘어가는 국수는 사실은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만들어진다.

요즘처럼 공장에서가 아니라 집집마다 밀가루를 빙고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들던 시절, 그야말로 그것은 귀한 음식이었으리라. 북방의 어딘가의 결혼식 날의 풍경이었는데 별다른 고명 하나 없이 면에 약간의 국물만을 부은 국수를 대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면이 가득 담긴 작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든 그 사람들의 얼굴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산해진미를 앞에 둔 이들에 뒤지지 않는 행복한 표정이였다.

소박하고 간단해서 오히려 귀하고 깊은 그 음식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관객과 함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맛을 상상하는 과정이 되기를 꿈꾸었다.

귀한 음식을 무대에서 나누며 사람살이의 고단함을 서로 어루만져 주었으면 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 일게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배우들과 빈 무대의 막막함을 맛으로 채운다.

힘들고 외로울 때 한 그릇의 음식이 주었던 위로와 온기가 때로 생의 버팀목이 되듯이 맛있는 연극 한 편이 가끔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국수를 खा다.



##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감동이 없는 국물은 육수가 아니라 그냥 물이다. 메르치 대가리 하나하나, 똥 하나하나 발라내는 사부의 표정은..  
과히 예술가의 영혼이다.

엄마야. 이 아저씨 진짜 웃긴다.  
처음 만나가 슬쩍 손잡고, 담엔 어깨나 뭐 그런데 실 만지다가..  
아저씨, 지금 내를 간보는 기가 뭐꼬?  
여자 혼자 식당하고 산다고  
내를 시피 보는 모양인데..  
흥, 어쩔뻔어치도 없다.



꿀랑? 꿀랑 국시국물!

니 내가 이 국물 맛 때문에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묵고 똥도 못 누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나?



빅뉴스다. 파곤파곤한 빅 뉴스!  
우리 식당 옆에다가 누가 자꾸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 있다 안카더나?  
내가 3일간 잠복수사를 한 결과 범인이  
밝혀졌다.



어린 시절 기억에서 너는 분홍색 원피스 입고 봄  
소풍 가는 진짜로 예쁜 아이다.

내가, 사내라면 징글징글하다.  
인물값 한다는 옛말, 수업료 내고 배운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그래 되고 나이 이 동네가  
무섭더라. 십년간 떠나 있었는데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네.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나를 버리고 가더라고.

국시 불어터진다. 빨랑 묵어봐라.  
네 솥씨에 뒤로 자빠지지는 말고.



맘이 몰캉몰캉해지든, 물대포도 힘이 쪽 빠지고,  
최루탄인가 그 맵고 요상한 것도 달콤달콤해질랑가? 호호호



배우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창수 김선관



길동 조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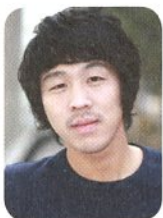
순영 오다윤



스텝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연출 김기영



조명 신현우



조명 박령순



음향 김민지



음악 김미원



사진 최두진



홍보 이수옥



진행 반민순



진행 손영성

도움주신 분들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홍보 디자인 | 봄길      조명 디자인 | 변인수

홍보 | 공간소극장, 지하철노동조합, 부산교통공사, 민주공원  
아름다운 가게, 커피 토마토, 평화장터, 노동자 생협, 티켓존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후원해주신 분들



**참의로 실천**  
부산 청년한의사회

일터 제18회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터를**  
사랑하는 선배들

일터 제18회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자인**  
실내 및 실외 인테리어

대표 오 의 석  
☎ 010-5719-1346

일터후원회원에게 특별할인

**LG화장품**  
뷰티플렉스

대표 서 원 오  
051)627-8333

감각적인 안·테·라·어·조·명  
**LAMPDA**  
W O O Y U N

실용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유리피면 라이트 스타일 조명 전문샵

www.lampda.co.kr (주)램프다우연 055-312-1062